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SBS/KBC),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ecial programs for September 25th.

하이라이트

혈기왕성 경찰대생 좌충우돌 수사기록

청년경찰

(SBS·25일 오후 8시 45분)

박서준, 강하늘, 성동일, 박하선 등 대세 배우들이 만났다. 이들은 맞춤 웃을 입은 듯한 최적의 캐릭터 소화를 보여준다. 의욕충만 경찰대생 기준(박서준)과 이론백단 경찰대생 희열(강하늘). 돌도 없는 친구인 두 사람은 외출을 나왔다 우연히 납치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목격자는 오직 두 사람 뿐. 기준과 희열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한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증거로 수사는 전혀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자, 기준과 희열은 직접 발로 뛰는 수사에 나서기로 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수사에 임하고 있는 기준과 희열이 아직 경찰이 아닌, '경찰대학의 학생'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극적인 재미를 더한다. 이들은 수사에 임할 때 퇴학을 우려

해야 하고, 범인을 제압할 장비도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등 한계에 부딪힌다. 오랜 기간 다양하게 변주해온 경찰 영화 계보에 신선한 변화를 줘다.



문제 풀면 바로 퇴근

육탐방의 문제아들(KBS2·오후 5시 50분) 김숙, 민경훈이 의외의 케미를 예고했다. 추석 파일럿으로 방송되는 '육탐방의 문제아들'은 최강 베테랑 예능인 김용만, 송은이, 김숙, 정형돈과 함께 예능 셋별로 떠오른 민경훈이 '퇴근'을 위해 문제를 풀며 상식을 쌓아가는 지식토크쇼이다. 마포구 한 옥상에서 첫 만남을 가진 예능 베테랑 김용만, 송은이, 정형돈, 김숙이 차례로 등장한 후, 민경훈이 마지막으로 옥상에 등장하자 출연진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표했다. 정작 민경훈은 모두에게 '초면'이라며 어색해했다. 과연 이들은 민경훈의 말대로 초면이었는지 놀랄만한 뒷 이야기가 공개될 예정이다.



'인생샷' 위한 수상한 동거

빅픽처패밀리1·2부(SBS·오후 6시 30분) 차인표·박찬호·류수영·우효광이 신규 예능프로그램 '빅픽처패밀리'에 출연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은 '살며 찢고 나누는 인생샷'을 콘셉트로 경상남도 통영에서 일주일간 동거하며 '인생샷'을 찍는 모습을 담아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차인표는 '빅픽처패밀리'의 든든한 '만행'이자 열정 만렙 선장님으로 나선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에 이어 사진사로 변신하게 된 차인표가 특유의 열정 넘치는 모습과 폭풍 예능감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또 '코리안 특급' 박찬호는 '빅픽처패밀리'에서 동네 사진사로 거듭났다.



연예계 '금손'이 모였다

독수공방(MBC·오후 8시 35분) 박찬호가 캐스팅돼 관심을 받은 MBC 추석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독수공방'이 시청자들과 만난다. '독수공방(독특하고 수상한 공방)'은 '1회 용품'과 '새끼'를 송배하는 요즘 사회에서 낯고 고장 나 버려지거나 잊혀지는 물건들을 출연자들이 직접 수리하고, 추억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포맷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특히 남다른 손재주를 가진 이른바 '금손' 출연자들이 공방의 멤버로서 실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찬호 선수, 악동뮤지션 이수현, '미대오펜' 김중재 등 출연.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ecial programs for September 26th.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은 '자홍'의 저승 여행

신과 함께-죄와 벌

(SBS·26일 오후 8시 45분)

14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몰며 한국영화 중에서 역대 흥행 2위를 차지했다. 인기 작가 주호민이 대표작인 동명 웹툰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인간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해왔던 김용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저승명, 이승선, 신화면 세 개로 나뉜 원작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에서는 망자가 된 '자홍'을 주축으로 그를 변호하는 삼차사의 여정을 담아냈다. 원작 웹툰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메시지는 살리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더욱 탄탄하게 압축



시키는 작업을 위해 원작에서 두 명이었던 인물을 한 명으로 압축해 캐릭터의 집중도를 높였다.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김향기, 김동욱 그리고 이장재, 김해숙, 이경영, 김하늘까

지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한데 모여 연기 성찬을 보여준다. 준비기간만 5년, 촬영기간 10개월, 장장 6년의 시간을 쏟아 부어 웹툰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재탄생했다.



차태현·김유정 찰떡궁합

사랑하기 때문에(MBC·오전 8시 55분) '과속 스캔들', '헬로우 고스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으로 자신만의 코믹 연기 영역을 만들어낸 차태현이 주연을 맡았다. 차태현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의 몸을 갈타는 뜻밖의 능력을 갖게 된 기어 상실 작곡가 '이형' 역을 맡아 교복을 입은 여고생부터 피곤에 찌든 형사, 배불뚝이 노총각 선생님, 치매 할머니를 오가며 신선한 웃음을 전할 예정이다. 여기에 아역에서 여전한 배우로 거듭난 김유정이 '이형'의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소녀 '스컬리'로 등장, 차태현과 독특한 호흡을 보여준다.



니들이 냉면 맛을 알아?

옥란면옥(KBS2·밤 10시) = 2부작 추석 특집극으로 연속 방송된다. 코믹휴먼드라마인 이 작품은 70년 동안 평양냉면 외길 인생을 살아온 아흔이 다된 아버지 달재(신구)와 냉면에서 벗어나 서울로 뜨고 싶은 마흔이 다된 노총각 아들 봉길(김강우)의 부자전쟁을 그렸다. 최근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는 배우 신구가 "니들이 냉면맛을 알아?"라며 자신의 유행어를 따라해 웃음을 자아냈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 봉길은 사십 평생 옥란면옥에 묶여 살아왔다. 단골마저 잃고 망해가는 옥란면옥에서 탈출하고 싶은 노총각 봉길의 파란만장한 일상이 눈길을 끈다.



막걸리집 살리기 고군분투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SBS·밤 11시 10분) = '본격 거리 심폐소생 프로젝트' 백종원의 골목식당 '대전 중앙시장' 편이 19일 남북정상회담 특집 방송으로 결방된 뒤 이날 방송된다. 방송에서는 대전 중앙시장 시식단으로 프로야구팀 한화 이글스 팬들이 나설 예정이다. 특히 최근 진행된 해당 방송 녹화에서는 시식단이 한 막걸리집의 막걸리를 맛보고 "썩은 식혜 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막걸리를 둘러싼 청년구단 대표와 백대표의 숨 막히는 공방전이 펼쳐진다. '독불장군' 막걸리 사장님의 고집을 꺾을 특급 솔루션이 공개된다.